

# “하나됨의 평등성 보면 언제 어디서도 행복해”

축서사를 지나 개울에 걸쳐진 작은 다리를 건너니 산으로 통하는 오솔길이 나온다. 짙은 그늘이 드리워진 산길을 따라 걸었다. 뾰족새와 휘파람새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숲의 고요를 깨운다. 암자라기보다는 토굴이라는 명칭이 더 잘 어울리는 북안 초입에 들어서자, 다들지 않은 흥나무를 잘라 울타리 삼고 나지막한 출입문 앞에는 '면담 가능 시간 12~2시'라는 팻말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수행자의 치열한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팻말이다.

기후 스님은 새벽 3시면 일어나 가사 장삼 수하고 축서사 대웅전에서 예불 올리고, 참선수행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요즘은 거처 앞뒤로 풀이 하도 우거져서 도라지를 심으려고 풀을 베고 땅 고르는 일을 한다고 했다. 도라지가 피어 울리는 보라와 흰색의 꽃 위로 밤이면 별빛들이 쏟아질 테고, 기후 스님은 별빛방장 노릇을 하겠지. 천년만년을 달려 온 별빛과 도라지꽃과 기후 스님이 나누는 이야기들이 궁금해진다.

1965년 늦가을, 수확여행을 간 인연 밖에 없는 범어사를 묻고 또 물어 찾아갔다. 범어사의 어산교에 이르자 저녁노을은 붉게 불타고 저녁 예불을 알리는 대중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사바의 율함이 저절로 녹아내리면서, 내가 살 곳은 바로 여기”라는 생각이 들더라.

“고인의 말씀에 화두는 하나로서 족하다고 하셨는데 나는 세 개를 갖고 지내니, 이 또한 기이한 일이지요.” 첫째는 나는 왜 천연두를 잃게 되었을까? 둘째는 어떤 인연으로 승려가 되었을까? 셋째는 내가 어찌다 위암에 걸렸을까? 이 세 가지란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생로병사에 대한 의문이 깊어져서 출가를 하신 것처럼 기후 스님 또한 자신의 삶을 화두 삼아 깊이 천착한 공부였음을 알 수 있다.

기후 스님은 한 살 때 천연두를 잃었는데, 온 몸을 녹이는 듯 한 고열은 얼굴에 흉터를 남기고 말았다. 얼굴의 흉터로 인해 어린 시절 친구들에게 놀림도 많이 받았고, 그것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만들었다.

“고등학교 때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인생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사춘기라 콤플렉스도 많았죠. 사범대학이나 교원대학으로 진학하여 교단에 서고 싶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자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는 바로 포기했어요. 그리고 어린 마음에도 이런 얼굴로는 결혼하기도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혼자 살아야한다는 조건아래 나를 받아들여주는 불교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스님들은 결혼을 안 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사니 스님이 되면 좋겠다는 막연한 환상 같은 것을 가지게 되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뻣뻣하게 딱 막힌 승복을 입은 스님이 지나가는데 향내가 나는 것이 참 멋있어 보이더라. 그때 나도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때부터 막연하게 스님과 불교를 연모했고,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으로 스님이 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천 가닥의 실버들도 때가 되면 가버리는 불기운을 붙잡지 못하듯 인연 따라 떠나가는



축서사 북안 기후 스님

나는 왜 천연두 잃었을까?

어떤 인연으로 승려가 됐을까?

어찌다 위암에 걸렸을까?

세 개의 화두 들고 사는 '별빛방장'

기후 스님은 1943년 안동에서 출생. 1965년 범어사로 출가하여 69년 통도사에서 시미계 수지, 통도사 승가대학 졸업. 통도사,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강사 역임. 용화사, 봉암사, 통도사 등 제방 선원에서 여러 안거 성안. 경주 기림사 북암에서 6년간 목언 정진. 1991년 호주 시드니 '정법사' 창건해 15년간 해외포교에 주력. 지금은 축서사 북암에서 안거 중이다. 저서로는 구도소설 <꿈속의 인연들>이 있다.

왕래의 길 또한 막지 못한다고 했다가. 출가의 인연 또한 그러하리라.

행자생활을 마치고 기후 스님은 월하 스님의 상좌가 되고 싶어 두루마기를 잘 차려입고 찾아갔다. 월하 스님께 상좌가 되겠다고 했더니 “근래에는 상좌를 안 받는데...” 라면서 점잖게 거절을 하시더라. 그때 기후 스님은 내 주제도 모르고 앞서갔구나 하면서 자책을 했다. 이때까지도 기후 스님에게는 “나는 왜 천연두를 잃게 되었을까?” 이것이 화두였다.

“불가에 들어오면 모든 허물을 감싸줄 것이라 믿었는데 스님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일반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에 실망했고, 승가대학을 다닐

때도 소임배차라던가 인물 좋고 학벌 좋은 사람을 우선시하는 것을 은연중 알게 되었어요. 자비문중이라 해도 사람 사는 데라 별 차이가 없음을 느꼈지요. ‘아, 내가 속았구나’ 그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 공부도 부족한 탓이지요.”

통도사 승가대학에서 <초심>부터 해서 <서장> <도서> <필요> <능엄경> <기신론> <화엄경>까지 훑법 스님께 배웠다. 훗날 스님이 강사준비를 하라고 해도 이런 얼굴로 어떻게 대중에 설 수 있을까 하고 많이 망설였을 정도로 소극적이었다. 승가대학에서 중강 소임을 보면서도 자신의 콤플렉스를 정진으로 극복하지는 못했다. “어떤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

을 갖게 된 것도 이때였다. 하심과 진실을 추구하는 한편 부처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했다. 진실하게 사는 것만이 전부라 생각하고 자신의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서 열심히 경전을 독송했지만 끝내 답을 구하지 못했다. ‘내가 있다’는 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마음이 모양이 있나? 무게가 있나? 그렇지만 사람들은 특하면 ‘마음이 무겁다 괴롭다’고 하잖아요. 실체가 없는 것이 마음인데, 별의별 감정을 느끼면서, 과거와 미래의 일로 인연해서 항상 얽매어 있어요. 얽매임을 끊으려 하지만 마음은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끊을 것이 없지요. 우리들의 마음은 생하기도 않고 멸하기도 않고 다만 망상이 일으킨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채는 것이 공부지. 이것을 모르니 괴로운 것이지.”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불 후 쪽지를 남기고 아무도 모르게 결망을 지고 통도사를 나왔다. 전강 큰스님이 계시던 용화사에 도착해 첫 철을 지냈다. 용화사에서 한 철을 지내면서 “그동안 찾아다녔던 감로수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면서 환희심을 삼키고 또 삼켰다”고 회고했다. 그 후 봉암사를 비롯한 여러 선원에서 정진했고 차별의 세계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 선원에서 나름 공부의 힘을 얻었다. 한 철 잘 지내고 해제 때는 내면의 갈등이 다시 시작되곤 해서 힘든 결단을 내렸다. 도반 세 명과 함께 기림사 북암에서 ‘6년 목언’ 정진에 들어가게 된다. 바깥출입을 일

천년동안 중생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고 계신 은진미륵 (보물 제 218호)

## 미륵성지 기도영험도량 은진미륵 관촉사로 초대합니다

**일천년 동안 한 곳에 서서, 수많은 중생들을 안아준 은진미륵!**

은진미륵은 서기 688년 조성을 시작하여 장장 38년간 불사를 진행, 서기 1006년 (목종 9년) 완성하였는데 찬란한 서기가 삼칠일 동안 천지에 가득하여 찾아오는 사람으로 자갯거리 이를 만큼 복적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은진미륵의 백호에서 나오는 황금빛이 너무 밝아 송나라의 지안대사가 빛을 따라 찾아와 예배하고 “마치 훗불을 보는 것 같이 빛나는 미륵불이구나!”하고 감탄했다하여 사찰 이름이 관촉사(灌燭寺)로 명명됐다고(관촉사사적비명)은 적고 있습니다.

**기축년 윤달 생전 예수재 및 성지순례 안내**

**생전 예수재의 내력과 원력**

부처님의 대공덕주인 ‘밤비사라’ 왕은 명부를 체험한 후에 다시 깨어나 전생을 참회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생전 예수재를 무려 59번이나 열어 그 공덕으로 도솔천에 환생하였다고 합니다. 중국 양무제 역시 매년 봉행하여 인연도리를 널리 알렸다고 합니다. 이에 관촉사에서는 생전 예수재 및 가사 불사를 봉행코저 하오니 나와 조상 그리고 자손만대로 이어지는 업장소멸과 극락왕생의 발원이 담긴 생전 예수재와 가사불사를 통해 전생, 금생 인연 법문을 듣고 이 목숨 다 할 때까지 수행하겠다는 원력을 세우시고 개피 임으시길 바랍니다.

- 생전 예수재
  - 기도일제 : 2009년 6월 5일 (음, 5월 13일) / 천도재 봉행 : 매주 목요일 대웅보전 오전 10시 30분
  - 기도회향 : 2009년 7월 23일 (음, 6월 2일) / 동참금 : 예수재 1인 5만원 / 가사불사 성의껏 동참
- 성지순례
  - 일 정 : 2009년 6월 30일 (음 5월 8일) / 순례사찰 :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 출발장소 : 관촉사 주차장 오전 7시 / 동 참 금 : 1인 3만원 (점심 제공)
  - 입금계좌 : 우체국 310086-01-000089 / 국민은행 453201-04-164635 (예금주 : 관촉사)
- 1029일 영가 천도 12번째 회향
  - 기도일정 : 2009년 6월 7일 (음, 5월 15일)
- 2009년 수능 100일 기도 입재
  - 2009년 8월 4일 (음, 6월 14일)

\* 관촉사 은진미륵 부처님께 좋은 성적 성취 발원 수능 기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많은 대중스님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축원 및 기도 봉행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반야산 관촉사 충남 논산시 관촉동 254번지 ☎ 041)736-5700~2 / 팩스 041)733-4169